

여수시,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446억 투입

청년예산 전남 최대... 일자리·주거·정착·소통·참여 5개 분야 60개 정책 행정 인턴 확대·신산업 기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주거·육아 집중 지원

여수시가 올해 청년 분야에 전남 최대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층 지원에 나선다.

여수시는 지난해 체계적 청년정책 실행을 위한 청년 전담 부서인 '청년일자리과'를 신설해 청년정책 5개년(2023-2027) 기본계획 수립, 청년 나이 18-45세 상향 조정 등 청년 희망 도시 조성에 나서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올해는 5개 분야 60개 청년정책 사업에 446억 원을 투입해 시청 15개 부서가 협업해 맞춤형 청년 정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분야별로는 ▲일자리 19개 사업 49억원 ▲주거와 정착 18개 사업 311억원 ▲생활 9개 사업 70억원 ▲소통과 참여 7개 2억원 ▲교육 7개 사업 14억원 등이다.

시는 지역 감정을 살린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대폭 확대한다.

청년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행정 인턴사업 대상자를 대학생에서 미취업 청년(18세-45세)으로 확대 추진하고, 지역 특화 산업 맞춤형 청년 일자리 사업, 여수형 청년도전 창업 지원 등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청년 창업 활성화에 주력한다.

미래 신성장 산업 분야 우수 유망 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에 중점을 둔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 민간 분야에서도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대폭 늘려갈 계획이다.

청년의 주거, 결혼, 육아 등 청년 생활 안정도 집중 지원한다.

올해는 주거와 정착 분야에 가장 많은 예산인 311억원을 확보해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민간 임대주택을 시가 임대한 후 청년에게 무료로 재임대하는 '여수형 청년 신혼부부 0원 임대주택 지원 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추진하고, 내년부터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년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취업자 주거비 지원,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신

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을 확대 추진해 청년 주거비 부담을 계속적으로 완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공공산후조리원, 여수시 공공심아어린이병원을 신규 운영해 의료 공백을 메우고,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를 통해 젊은 부부의 정주여건 개선에도 힘쓴다.

여수시는 청년이 원하는 삶, 청년 소통·참여·문화 활동 활성화에도 본격 나선다.

올해 상반기에 청년지원센터를 접근성이 좋은 문수동으로 이전해 청년소통거점 공간으로 재단장하고 청년참여예산제, 청년활동가 지원, 청년페스타 개최, 청년 단체 역량 강화 사업 등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 채널도 다양화한다.

여수세계박람회장 유희공간에 청년문화 공간을 제공해 다양한 청년 예술인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복지카드 지원금도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해 청년들이 더 많은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김태환 여수시 청년일자리과장은 "여수는 국가산단을 보유한 산업도시이자 관광 특화 도시로 인근 지역에 비해 경제적 여건이 월등히 좋은 편"이라며 "GRDP(지역내 총생산) 기준 순천시에 비해 4.5배, 광양시에 비해 2.5배가 높은 호남에서 광주에 이어 둘째 도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강점으로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에 행복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정월대보름 낙안읍성에서 '소원을 말해봐'



순천 낙안읍성이 정월대보름인 24일 당일 무료 개방된다. 지난해 열린 달집태우기 행사. <순천시 제공>

순천시, 24일 무료 개방...숫대 세우기·떡국 나눔·전통 공연 등 다채

정월대보름을 맞아 24일 순천 낙안읍성이 무료 개방된다.

순천시는 오는 24일 낙안읍성에서 '2024 순천 낙안읍성 정월대보름 행사'를 열고 당일 무료로 읍성을 개방한다고 밝혔다.

정월대보름 행사는 사단법인 낙안읍성보존회, 낙안면이장협의회, 낙안면부녀회, 낙안면청년회 등 낙안면 여러 기관과 단체, 주민들이 함께 마련했다.

행사는 오전 10시에 김빈길 장군 추모제로 시작한다. 오전 11시에 장승 및 숫대 세우기, 오후 2시부터 당산제, 인절미·떡국 나눔, 큰줄다리기, 전통 공연이 진행된다.

오후 5시 30분부터는 햇불 들고 성곽 돌기, 달 집태우기가 진행된다.

햇불 들고 성곽 돌기는 당일 선착순 300명을 모집하고, 순천 낙안읍성 성곽을 돌아 놀이마당으로 집결한다.

달집태우기는 순천 낙안읍성과 뿌리깊은나무박물관을 찾은 방문객이 쓴 소원지를 태우며 모두의 소원과 안녕 그리고 풍요를 기원한다.

행사 당일 낙안읍성 놀이마당에서는 제기차기, 투호, 단체줄넘기, 윷놀이, 비석치기, 팔씨름 등 전통 민속놀이도 즐길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 낙안읍성 정월대보름 행사를 통해 세시풍속의 의미를 되새기고 한 해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보성차, 보고 맛보고 체험하고 '71가지 즐거움'

5월 3~7일 보성다향대축제 찾알따기·음료 개발·치유 프로그램 콘서트·스포츠 행사 등 동시 개최

보성군이 오는 5월 3~7일 한국차문화공원 일원 등에서 개최하는 제47회 보성다향대축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26만여명의 관광객이 방문해 성황리에 마무리된 보성다향대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2025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됨과 동시에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에도 선정된 지역 대표 행사다.

올해 보성다향대축제는 보성다향대축제 추진위원회(보성차생산자조합)가 주최하며, '녹차수도 보성'의 풍부한 문화와 고유한 전통을 보존하고 그 가치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천년 차(茶)의 유혹, 보성의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열린다.

보성군은 청년 및 가족 단위 방문객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축제의 장을 만들기 위해 보고, 느끼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9개 분야 71종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대표 콘텐츠로는 찾알 따기와 차 만들기, 보성 티마스터십 보성 차(茶) 음료 개발 대회, 보성에(愛)물들다(茶) 보성 차(茶) 이색 체험, 녹차 치유(테라피) 등이 있다.

특히 올해 축제는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라는 지위에 걸맞게 핵심적인 주요 프로그램들을 보강 및 확대해 관광객들에게 '녹차수도 보성'에서만



보성군이 오는 5월 3~7일 한국차문화공원 일원 등에서 개최하는 제47회 보성다향대축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진은 다향대축제에서 차 만들기 체험을 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모습. <보성군 제공>

경험할 수 있는 차별화되고 풍성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기획 단계부터 체계적인 재해 대처 및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해 관광객 맞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은 이와 함께 다향축제기간에 맞춰 보성군민의 날, 보성데일리콘서트, 일립산철쭉문화행사, 어린이날 행사, 청년 행사, 전국 단위 스포츠 행사

(마라톤, 요트) 등이 동시에 개최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더할 계획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관광객들의 가슴속에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는 보성다향대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축제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보성의 아름다움과 차 문화를 선보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보성차는 제2부흥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성=김은백 기자 kyb@kwangju.co.kr

구례 산동 산수유꽃 보며 봄 정취 만끽

산수유꽃축제, 다음달 9일~17일 지리산 온천 관광지 일원

제25회 구례산수유꽃축제가 '영원한 사랑을 찾아서' 주제로 오는 3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구례군 산동면 지리산 온천 관광지 일원에서 열린다.

구례군에 따르면 축제 첫날은 오전 10시 산수유 시목지에서 봉선기원제가 봄꽃 축제의 문을 연다. 이어 오후 6시 주 행사장에서 개막식이 열린다.

개막공연은 가수 박서진, 요요미, 진시몬, 현진우, 이정욱이 출연해 봄밤의 열기를 한껏 끌어올린다.

올해 축제는 구례 산수유 콘텐츠 특화를 목표로 5개 부문 29개 종목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지역 가수들의 트로트 공연(봄이 오는 소리), 다양한 버스킹 공연(봄날의 버스킹, 사랑의 버스킹, 영원의 버스킹), 흥겨운 농악 한마당이 축제의 흥을 돋우고, 산수유 열매 까기 대회와 산수유 꽃 담길 경기가 대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수석 공연에서는 어린이 활쏘기 및 전통 놀이 체험행사가 열린다.

산수유차와 전동차를 무료로 시용할 수 있으며, 산수유 떡메치기 체험도 할 수 있다. 지역 농특산물 판매장터, 신활력플러스 사업추진단 버스, 구례자활센터 특산품 판매 버스, 푸드 트럭 등에서 다채로운 판매행사도 진행된다.

관람객은 건강증진 앱 워크온을 이용한 산수유 꽃길 걷기와 팡양, 허동, 곡성, 구례 등 섬진강권 통합관광벨트 협력 프로그램 캐시워크 스탬프투어에 참여할 수 있다.

군은 관람객이 상위, 하위, 월계, 평촌마을의 산수유 군락지도 즐길 수 있도록 셔틀버스를 증편 운행 예정이다.

교통 체증 완화를 위한 산동면 관광안내소 옆 대형 버스 주차장과 임시주차장이 운영되고, 캠핑족을 위한 캠핑카 존이 관광운동장에 마련됐다.

축제 막바지인 16일에서 18일은 산동면 지산정에서 산수유꽃축제 기념 전국 궁도대회가 열린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고흥 마른 김' 검사소 등급제 시연

전국 최대 김 생산지...물김 연간 10만t·마른김 2500만속 생산

고흥군 수협(조합장 이재재)의 마른 김 검사소 등급제 시연회가 지난 20일 열렸다.

이날 시연회는 김영록 전남 도지사 공영민 고흥군수 한국 김산업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마른 김 검사소 등급제 운영 상황과 국제 거래소 설립 등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고흥군 수협 마른김 품질검사소는 마른김의 등급제를 도입하고, 종합물류 기지를 구축해 생산부터 가공 수출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인을 최소화 하고 신선하고 안전한 고흥 김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다.

고흥군 수협은 군비와 도비 등 총 59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난해 2월 품질 검사소와 저온 유통시설을 건립했다.

고흥은 전국 최대의 김 생산지로 연간 10만t의 물김과 2500만속의 마른김을 생산하고 있다. 고흥 특산품 김은 양질의 제품으로 대량 수출되고 있지만 고품질 시장 진출과 물류기지 확보 가격경쟁력 강화 등의 과제가 남아있다.

이를 해결 하기 위해 고흥군과 고흥군 수협은 마른 김 품질검사와 자체 등급제를 실시해 전남지역의 광역 거점형 마른 김 품질검사 유통센터를 발전시키고 김 식품화를 통해 세계 김 시장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고흥군 수협 마른김 검사소는 앞으로 고흥 김을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들고 고흥 김의 고부가가치와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

광양 백운산자연휴양림 4~10월 부분 휴장

야영장 테크 외 정상 운영

공급될 수 있도록 설비를 구축한다. 오는 4-10월 야영장 시설 가운데 테크시설만 휴장한다.

백운산자연휴양림 일반 야영장은 1야영장(37테크), 2야영장(18테크)으로 운영·관리되고 있다. 이들 시설은 겨울철인 11월부터 3월까지도 휴장한다.

한편 백운산자연휴양림에 있는 황토길은 '맨발 걷기 열풍'에 호응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연중 개방한다. 광양시는 황토길 이용객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 휴양림 입구 주차장과 연결되는 황토길 진입로를 정비하고 세속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야영테크 규격을 확대하고, 취수장에서 온수가

야영장 테크 외 정상 운영

새 단장에 들어가는 광양 백운산자연휴양림이 야영장 테크시설에 한해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휴장한다.

백운산 일대에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 제공을 위한 '광양 백운산 산림복지 단지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래된 시설물을 개선하는 '백운산자연휴양림 보안사업'도 진행된다.

광양시는 산림 레포츠 시설과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고, 숲속의 집을 고친다.

야영테크 규격을 확대하고, 취수장에서 온수가

고흥 청소년 주민증 발급 축하 적금 나왔다

1년 만기 시 이자 7% 적용

고흥군이 고흥새마을금고와 함께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을 축하하는 적금 상품을 출시했다.

대상은 고흥에 주소를 두고 첫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17세 청소년이다.

1년 만기, 매월 70만원 이내, 만기 시 7% 이자를 적용하는 고금리 상품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지원한

다. 대상자는 최초 주민등록증 발급 후 3개월 이내 고흥새마을금고를 방문·가입해야 하고,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우대금리를 적용받으려면 적금 가입부터 만기까지 고흥에 주소를 유지한다.

유명군 고흥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지역사회 일원으로 성장한 지역 청소년을 응원하고 인구소멸을 극복하는 작은 동행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kwangju.co.kr